

한국전쟁 정전 70년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

<18> 제주 포로수용소



1953년 모슬포 포로수용소에 있던 반공포로들이 열병식을 재현하기 위해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거제서 유혈충돌 2만 중공군 포로 반공-친공 나눠 수용

거제포로수용소서 '이념전쟁'으로 제주 분리
제주비행장 수용 친공포로 시위 165명 사망·부상
모슬포 육군 제1훈련소에서 반공포로 관리감독
친공 5000명 중국행, 반공 1만4000명 대만행

2만 중공군 포로는 제주도에 왜 왔을까?
3년 1개월(1129일) 동안 벌어진 6·25전쟁에서 중공군 포로는 약 2만1700명으로, 미국 4439명보다 5배나 많았다.

전쟁이 한창일 당시 포로수용소는 육지와 떨어진 섬인 제주도가 후보지였다. 1950년 말 중공군의 공세로 서울을 다시 빼앗기자, 제주도의 포로수용소 설치에 유력해졌다.

다만, 리지웨이 미8군사령관은 제주도가 피난민으로 초만원이 된 점, 이 섬은 임시정부가 들어설 최후의 보루로 여기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육지와 비교적 거리가 가깝고 물 공급이 가능한 거제도가 포로수용소로 낙점됐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전쟁이 끝날 조짐이 보이자 생포되거나 항복한 포로 송환은 쟁점이 됐다. 포로수용소는 냉전과 이념 대결의 축소판으로 또 다른 전쟁터였다.

2만명에 달했던 중공군 포로들은 반공(反共)과 친공(親共)으로 대립했고, 서로를 죽이고 학대하는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폭동과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자, 유엔군사령부는 1952년 2월 '분리 작전'에 돌입했다. 그해 7월까지 약 2만 명에 이르는 중공군 포로를 거제도에서 제주도로 보냈다.

당시 중화민국(대만)으로 가길 원했던 반공포로 1만4000여 명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지역에, 중화인민공화국(중국)으로 송환을 원했던 친공포로 5900여 명은 제주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 부지에 수용됐다.

친공포로들은 1952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3주년을 맞아 시위를 벌였다. 미군 2개 소대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포로 45명이 사망하고, 120명은 부상을 당했다.

유엔군사령부는 "폭동(시위)은 집단 탈주를 위해 시작됐으며, 포로들은 탈옥 후 한라산 뿔치산과 합류할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 이후 경비를 맡은 미군과 친공포로의 갈등은 심화됐으며, 포로수용소 주변에 살



1953년 모슬포 포로수용소 전경. 제주 현무암과 양철 지붕으로 설치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1953년 서귀포시 모슬포 포로수용소에 머물던 반공포로가 대만 행을 앞두고 짐을 꾸리고 있다. 소지품으로 장제스(蔣介石·장개석) 대만 총통 사진이 눈길을 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았던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반공포로가 수용된 모슬포지역에서는 유혈 사태가 일어났다는 기록은 없지만, 주민들은 '사제 수류탄 폭발', '포로끼리 패싸움 후 시체 유기 사건' 등을 언급,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시 모슬포에는 육군 제1훈련소(1951~1956년)가 설치됐고, 한국군도 포로수용소 경비 업무를 맡았다.

지붕으로 얹은 양철판 밑에 기름을 먹인 종이(루핑)를 바른 수용소 환경은 열악했다.

"포로수용소 건물은 나지막하고 검은 루핑 지붕이어서 여름철에는 실내 열기가 대단했다. 나무판자로 물방아와 비슷한 선풍기를 만들어 포로들이 줄을 교대로 당기며 바람을 만들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미군부대를 출입했던 이발사 서병수씨가 당시 수용소의 열악한 사정을 증언한 내용이 다.

중공군 포로들은 채소밭을 일궈고, 미군의 감시 아래 수용소 인근 송악산에 오르거나 바

닷가에서 미역을 채취하기도 했다.

설리반(sullivan) 군종신부는 이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포로들은 늪지를 매립하고 돌을 나르며 모슬포성당 건립 공사에 투입됐다.

성당이 완공되자 '통회의 집'으로 불렸다. 포로들이 한국에 많은 피해를 입힌 죄를 뉘우치며 지은 집이라는 뜻을 담았다. 나중에는 사랑으로 포로들을 용서하자는 의미로 '사랑의 집'으로 변경됐다.

1953년 6월 8일 전쟁포로 송환 협정이 이뤄졌고,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됐다.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에 패해 대만으로 쫓겨 간 장제스 국민당 정부는 정전 협정 체결 전인 1953년 초부터 반공포로와 교섭하며 이들의 대만 송환을 준비했다.

1953년 7월 29일 대만 정부는 제주에 있는 반공포로들에게 출판물과 영상물 제공과 함께 위문단 파견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중공군 포로의 대만 행은 국민당 정부가 내전에 쫓겼지만, 이데올로기에서는 승리했다

고 선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한 달 후인 8월 28일 대만 정부가 파견한 위문단이 제주도에 도착했다. 대만 공군은 수송기 8대를 동원, 37t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당시 대만 언론에 소개된 위문품은 1인당 쌀 1홉, 소고기·채소 통조림 1개, 파인애플, 바나나 2개, 리닝셔츠 1벌이었다.

1년 남짓 제주도에 수용된 1만4000여 명의 반공포로들은 대륙 행을 거부하며 팔뚝에 '반공(反共)'이나 '살주발모(殺朱拔毛)' 같은 문신을 새겼다. 흥군 총사령관 주더(朱德)를 죽여 버리고 마오쩌둥(毛澤東)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반공포로 1만4000여 명은 제주도를 떠나 1954년 1월 20일 인천항에서 미군 수송선에 올랐다. 1월 23일 대만 지령항에 도착한 이들은 반공의사(反共義士)로 대접받았다.

제주비행장에 수용됐던 친공포로 5000여 명도 선박과 육로를 통해 1953년 8월부터 9월까지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주일보·좌동철 기자

“포로수용소 복원해 전쟁의 참상·역사 후대에 알려야”



김웅철 향토사학자가 중공군 반공포로들이 모슬포 포로수용소에서 거행된 장례식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김웅철 향토사학자 인터뷰

"70년 전 중공군 포로 2만명이 1년 넘게 제주도에 수용된 것은 전쟁사나 외교사에 중대한 사건이다. 제주 섬에서 벌어진 반공포로와 친공포로의 갈등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이자, 이념 갈등이었다."

역사사진 자료집 '강병대(육군 제1훈련소) 그리고 모슬포'를 발간한 김웅철 향토사학자(73)는 반공포로들이 도열, 이국땅에서 숨진 동료의 시신에 청천백일기를 덮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담긴 귀중한 사진을 갖고 있다. 김씨는 "중공군들은 모슬포-사계리 도로가

설과 모슬포성당 기초 공사에 동원됐고, 일부는 아일랜드 출신 설리반 군종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며 "채소를 즐겨먹으면서 농장대를 조직, 수용소 인근 밭에서 채소를 직접 재배했다"며 당시 생활상을 소개했다.

이어 "포로들은 또 '자치대'를 조직,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군대식 열병을 했고, 양철 조각으로 만든 피리를 불며 애환을 달랬다"며 밝혔다.

김씨는 "반공포로는 모슬포지역 3곳에, 친공포로는 현 제주공항 화물청사 인근 1곳에 설치됐는데 수용소 건립으로 민가가 철거되고 토지가 강제 징발되면서 마을주민들이 적

잖은 피해를 봤다"고 했다.

대정읍 상모리에는 중공군 포로수용소 건물 외벽이 남아 있다. 길이 20m, 높이 2m의 석축 벽에는 창물 모양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김씨는 "냉전시대, 제주에 수용된 중공군 포로 70%가 대만 행을 선택한 것은 국제사회에 큰 이슈였지만, 지금은 수용소 터와 건물이 마늘밭(사유지)에 남아있고, 70년 넘게 방치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수용소 터를 매입하고 복원해 전쟁의 참상과 역사의 교훈을 후대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일보·좌동철 기자